월/요/광/장

민경한

제 식구 챙기기 이제 그만!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정쟁만 일삼다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수백 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때면 세비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의원들이 국정 감사장에서 온갖 비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는 밥값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 실태가 폭로되었는데 여전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일상화된 제 식구 챙겨주기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한번 보자.

공기업인 한국 철도공사가 2005년 출범 이후 누적부채가 10조원에 이름에도 직원 가족, 공사 퇴직자들에게 공짜 승차권 109만장 144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가 자회사 및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영리기업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거나 제한 경쟁계약을 맺어 제 식구 챙기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한 업체에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52건의 수의계약을 주어 다른 업체는 도외시하고 이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었고, 자회사에 지난해 1천540억 원, 올해 8월까지 1천52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금융 감독원이 200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의 2급 이상 퇴직자 61명 가운데 59명이 금감원 산하의 금융기관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안택수 의원은 "금감원은 퇴직대상자를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 출장소나 인력개발실로 발령을 낸 뒤에 산하 금융 관련 기업체에 편법으로 감사에 앉히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기업체의 경영상태, 감사 임기, 급료 실태 등을 훤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이 취업제한 기간을 외면하고 삼성, 두산, SK 등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취업한 금감원의 고위급 퇴직자, 대기업에 취업한 검사, 판사들의 업무가 퇴직 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이들이 퇴직 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과 전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었고 퇴직한 기관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높은 직위나 연봉을 지급하고 채용하였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독 및 수사기관의 고위 직급의 퇴직자가 많은 연봉을 받고 고위직으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의 감사 및 법무팀 등에 취임한 것은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감사나 수사에서 편리함이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 중 63%가 상고심 사건이고 이들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일반 변호사의 40%와 비교도 안 되는 6. 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불속행 기각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거나 공동으로 선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조 섞인 소리가 변호사들로부터 자주 들린다.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에게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문제점이나 대책이 수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편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계속되고 있다.

수사나 재판, 감사, 계약 및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제발 학연, 혈연, 지연, 직장 선후배, 동기 의식을 떠나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보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자. 제 식구 챙기는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피해를 보게 되고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의료기관 연말정산자료 제출 협조해야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증빙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료기관의 주장과 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치는 매우 당연하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자료제출 대상 7만8천여개 의료기관 가운데 35%에 달하는 2만7천여개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거나 근로자들이 직접 병원을 돌며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의료기관들은 환자 사생활 보호와 실무인력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사생활 침해와 관련,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환자정보 보호가 완벽하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치료금액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다 인터넷으로 조회할 경우에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력부족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있다. 고객인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판단대로 수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의사 등 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기피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도 자료 제출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세무관리 우대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주택대출 금리 급등…허리 휘는 서민 가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경제상황이 경기둔화, 세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40~7.01%로 연중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년 새 75만 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금리 급등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탓이 크지만 시장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4.71%까지 올라 3년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뿐 아니라 상승속도가 빨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 주택대출자에 한정돼 적용되지만 CD 금리 인상은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은 현재 558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이 주택과 관련한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은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 가계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는 금리상승이 가계부실과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 경기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마저 상승한다면 주택가격의 폭락을 유발, 금융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경기를 활성화해 고용과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법조 칼럼

안동철

법·검 갈등, 엉뚱한 피해자 만들지는 않을까?

"안 검사"

"……"

"안 검사"

'아! 참, 나 얼마 전에 검사됐지', "아, 예 부장님"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죄송합니다."

아직 검사라는 호칭이 낯설기만 하다. 이제 검사된 지 3개월. 월 말도 3번이나 지나보냈건만, 아직은 모든 것이 너무 서툴다. 그래도 한 때는 열심히 일한다는 평을 받는 변호사였는데…

월 말을 정신없이 보내고 조금 여유를 가진 어느 날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눈에 들어 온 유머다.

『고등학교 동창 송년모임에 참석한 김달봉씨. 사회를 보는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

"지금부터 모두 부인에게 '예쁘다' 또는 '당신이 최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응답이 제일 시원치 않은 사람이 오늘 술값을 내는 거야." 바가지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김달봉씨. 불안한 심정으로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다. "여보, 나야. 요즘 당신 참 예뻐 죽겠어." 한참 후 부인이 보내온 답변 메시지. "의사가 당신 암이래?"』

웃음과 여유가 잠시 지나가고 불현듯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15년 이상을 잘 지내온 부부였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잦은 말다툼으로 서로 상처를 주었고, 급기야 폭력이 오가는 정도가 되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고, 재판진행도 순조롭지 않았다.

몇 명의 증인이 이미 증언을 했음에도 두 사람은 큰딸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서로 잘못을 끄집어내려 했다.

남편과 부인 모두 딸이 자기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증언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딸은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는 그만 울어버렸다.

나는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화해기일을 요청했다. 그 딸은 당시 변호사인 나에게도 찾아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싶으니, 아빠 엄마를 화해시켜 주세요."라고 했다. 두 부부를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서로에 대한 비난과 경멸과 멸시에 의해 쌓인 벽은 너무나 두꺼웠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2년 6개월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접할 때가 가끔 있었다. 부부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엉뚱하게 자녀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지는 않을까? 서로에 대한 비난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오가는 설전을 보는 변호사 출신 경력 3개월의 신임검사로서 이런 상상을 해본다. 추운 겨울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검사. 찬바람 때문에 눈에 눈물이 고인 검사를 보고 판사가 말한다.

"아니 검사님, 웬 눈물?"

"아, 예 판사님이 반가워서"

"재치가 죄라면 검사님 사형감인 거 알지요"

"판사님 칭찬 실력에 사모님은 세월을 비껴가겠어요."

〈광주지검 검사〉

기 고

정병길

농촌사랑,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요즘 한·미 FTA 협상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 협상은 농업부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 가격폭락은 당연할 것이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가격은 우리나라 도매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성과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결국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변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개'라 새는 40년 정도 살게 되면 생사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부리는 서서히 심장을 향해 자라나고 깃털은 점점 무거워져 날을 수 없게 되어 그대로 있으면 결국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솔개는 6개월 동안 부리를 바위에 쳐 깨뜨린 후 갉아서 부리의 방향을 바꾸고 발톱을 뽑아 새로 난 발톱으로 깃털을 뽑아 털을 가볍게 한다. 이런 과정을 겪은 솔개는 40년을 더 살게 되고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솔개는 결국 죽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 작금의 농업현실은 솔개의 입장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제는 우리 농업인들도 마냥 정부나 농업단체의 지원을 바라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들도 농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은 '생명산업' '천하지대본' '경제성장의 희생양'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비농업인의 시각은 무한경쟁시대에서 농업도 이제는 정부의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농업인들도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앞에서 본 솔개의 선택처럼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한 정보입수를 통해 발 빠른 대응전략 수립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시민의 농사체험 등을 통한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여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구례교육원 부교수〉

농기계 무상 수리기간 1년은 너무 짧아

구례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트랙터를 쓰고 있는데 무상 보증 수리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한다.

콤바인이나 트랙터의 경우 1년 사용기간은 고작 10~3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바쁜 농번기철 잠깐쓰는 것인데도 무상 수리 기간이 1년뿐이다.

또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부품을 찾기도 힘들고 수리비도 비싸다.

아버지도 4년된 트랙터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고 이 기간동안 트랙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트랙터보다 가격이 싼 자동차도 무상 수리가 2~3년이고 10년 넘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부품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순전히 농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농민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농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 것 아닌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은 얌체짓

연말정산을 앞두고 봉급생활자들은 서류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을 보면 준비하는 기부금 서류를 보면 종교단체 영수증으로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씩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곤 한다.

평소에 종교활동을 하거나 특별히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연말정산 때는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활동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피식 웃으며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부모님이 다니시는 종교기관에서 대신 끊어왔다는 사람, 아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있어서 적당히 만들었다는 사람, 친구나 친지가 종교단체에 다닌다는 이유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받는 사람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었다.

예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했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적도 있었다.

사실 이같은 행위는 엄연히 탈세행위다. 종교단체는 신자가 정당하게 기부한 외에 절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종교단체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기에 가능한 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의 이득을 위해 가짜영수증을 남발하여 신뢰를 잃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종교계 등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향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無等鼓

'프랑스 24'

지구촌 뉴스 경쟁이 갈수록 속보·특종을 넘어 '가치관·이념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으로 뉴스가 객관적일 수는 없다. 매체가 소속된 정치적·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명 충돌의 시대'라는 21세기에는 더욱 그렇다. 자기 문명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와 가치를 홍보하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의 여론은 앵글로색슨계인 영국 BBC와 미국 CNN의 손에 좌우됐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의 상징'인 BBC와 '뉴스방송의 혁명'인 CNN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서방 중심의 일방적 뉴스 전달이란 수십년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첫 도전장은 아랍권 목소리의 대변자 '알 자지라'가 냈다. 1996년 창립된 알 자지라는 '하나의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을 모토로 중동 문제에 대한 '투명한 유리창' 역할을 자임했다. 알 자지라는 오사마 빈 라덴 인터뷰 등을 내보내면서 중동 뉴스를 독점해왔다. 1991년 1차 걸프전 때 CNN의 피터 아네트가 현지 전쟁 중계로 명성을 얻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알 자지라가 대신하고 있다. 미국은 "탄저균보다 더 무섭다"며 알 자지라를 눈엣가시 취급을 하고 있다.

알 자지라 뿐 아니다. 지난해 7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쿠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합작으로 '텔레수르'(tele-SUR)를 창설했다. '남쪽(개도국)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태어난 이 방송은 극단적 반미주의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초강대국의 추억을 잊지 못한 러시아도 지난해 옛 소련권 국가들에 뉴스를 공급하는 다국적 방송 '러시아 투데이'를 출범시켰다.

또 하나의 위성방송이 탄생했다. 프랑스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목표로 출범한 '프랑스 24' 방송이 지난 7일부터 전파를 타고 있다. 뉴스의 가치관 전쟁시대,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매체는 아직 요원하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